

제1장

표준화의 기원과 발달

넓은 의미에서 표준화는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선사시대에 원활한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공통된 그림이나 소리 등의 상징을 사용함으로써 의사를 소통하고 특정 상징에 공통된 의미를 부여키로 약속을 했던 것, 통일된 형태의 물건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표준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표준화는 근대에 이르러 산업기술의 발달이 본격화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특히 18세기 말에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산업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기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자연스레 산업기술 분야의 표준화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의 정보통신 표준화는 19세기에 전화기가 발명되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37년 미국의 청년화가 모스(S.F.B. Morse)에 의한 전신기의 발명과 1876년 그레이엄 벨(A.G. Bell)의 전화기 발명, 그리고 1895년 이탈리아 마르코니(G.M. Marconi)의 모스 신호 송신 성공 등을 시초로 하여 전기통신이 우리 생활 속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오늘날의 정보통신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통신 기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정보통신 표준화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게 되었으며, 이는 그 이전의 산업기술 표준화보다 훨씬 복잡하고 방대한 소위 프로토콜 표준화를 지향하기 시작하였다.

1906년에는 오늘날의 국제전기표준회의(IEC)가 출범함으로써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도 국제표준화운동이 시작되었고, 1926년에는 만국규격 통일협회(ISA)가 설립되어 전기·전자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가 시작되었다. 1944년에는 연합국 18개국의 국가표준화단체가 구성한 국제연합규격조정위원회(UNSCC)가 활동을 중단하고 있던 ISA의 업무를 인수하여 임시기관으로 활동을 했다.

UNSCC는 1946년 런던회의에서 공업규격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을 촉진하는 새로운 국제기관의 설립을 제청함으로써 1947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출범하는데 산파역을 맡았다.

한편 국제표준화활동은 공업분야보다 전기통신 분야에 먼저 이루어졌는데, 전신기가 발명된 지 채 30년도 안된 1865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을 창설함으로써 그 활동을 본격화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표준화는 1961년 9월 공업표준화법 제정 공포와 함께 국가차원의 공업 표준화 사업이 정부 주도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상공부 내에 표준국이 설치되었으며, 이듬해인 1962년 3월 표준화기구로서 한국표준규격협회(표준협회의 전신)가 설립되어 공업표준화 추진체계가 갖추어졌다. 이렇게 하여 국내표준화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공업표준(현 산업표준) 위주로 추진되었다.

이에 비해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표준화활동은 1952년 정부가 ITU에 가입한 이후 KT(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국한되어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본격적인 정보통신 표준화활동은 1988년 정보통신표준화 전담기구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설립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등 표준기술 연구기관이 설립되어 표준제정을 비롯한 표준화 연구, 보급, 활용 관련 활동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